

2011년 조손가정 지원 시범사업 성과분석*

송혜림(울산대 교수) · 조영희(서원대 교수) · 김유경(송의여대 전임강사)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1년도 2월-12월에 조손가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방문서비스(배움 및 키움 사다리) · 직접서비스(가족심리정서지원, 가족문화지원, 조부모건강지원) · 연계서비스(장학, 주거환경개선지원)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이 시범사업의 전국적 활성화 및 발전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성과를 분석한 바, 이를 위해 사업을 수행한 4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 종사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성과분석 지표 초안을 마련한 다음, 지표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 최종지표를 확정하였다. 성과분석지표는 총 4단계, 즉 프로그램 입증(추진 실적) - 상황적 확인(사업만족도, 가족관계 개선) - 시스템 입증(사회적 형평성) - 사회적 선택(사회적 규범과의 일치도)으로 구성되었다. 4개 시범사업의 실적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성과분석 결과, 1단계 프로그램 검증은 사업실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는데, 매뉴얼과 지침에 따른 기준을 우수한 수준에서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업의 핵심은 배움사다리서비스에 있으며 키움사다리서비스가 병행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가장 가치적인 성과인 손자녀아동세대의 학습능력 및 성적 증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 상황적 확인은 이미 설정한 정책/사업의 목적이 특정한 문제 상황에 적합한가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만족, 가족관계개선도를 평가하였다. 서비스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제공 횟수 · 일정 준수 · 서비스 내용과 시기 · 서비스제공인력 · 실제 도움 정도 등의 차원에서 대부분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가족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조손가족의 조부모/손자녀세대의 소통 및 심리적 안정, 응집 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단계 시스템 입증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평가한 바, 손자녀세대 아동의 성적 향상, 조부모세대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 회복, 조손가정의 소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등의 해소에 기여, 사회적 형평성에 근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4단계 사회적 선택은, 조손가족의 기능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였는데, 조손가족의 자립 및 자원화를 통해 예방적 · 선제적 가족정책에의 기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세부적인 사업지침과 사업운영시스템의 보완,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대안 모색, 조손가정세대의 자립과 자원화를 위한 세부적 서비스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2011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연구 ‘조손가정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함

1) 여성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운영 매뉴얼.